

기술철학의 제자리 찾기: 랭던 위너의 기술철학†

손화철*

본 논문에서는 현대기술에 대한 랭던 위너의 철학적 분석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의의를 평가함으로써 기술철학의 최근 동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우선 1절에서는 위너가 기존 기술철학의 두 흐름, 즉 고전적 기술철학과 경험으로의 전환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위너의 기술 이해, 현대기술사회에 대한 진단, 기존의 기술철학에 대한 비판적 분석, 현대 기술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제안 등을 차례로 검토한다. 6절에서는 위너 이론의 한계와 의의를 살펴본다. 위너의 지적 여정은, 기술철학의 이론들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실천성을 무시하지 않으며,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술철학의 발전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랭던 위너, 기술철학, 고전적 기술철학, 경험으로의 전환, 기술철학의 미래, 기술의 표류, 기술의 민주화

† 이 연구는 2008년도 한동대학교 교내연구 지원사업에 의한 것이며, 본 논문은 익명 심사자 두 분의 지적에 따라 수정된 것이다. 두 분의 건설적인 지적에 깊이 감사드린다.

* 한동대학교 교수
 전자우편: phtech@handong.edu

기술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 기술철학은 철학의 분과 중에서 신생 분야로 아직까지 그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사회에 대한 진단에 초점을 맞추느냐 처방을 중요시하느냐를 기준으로 둘 수도 있고, 기술철학의 주제가 기술 활동의 본질에 대한 탐구인지 기술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기술철학의 대상이 현대기술인지 기술 일반인지를 두고도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cf. 손화철, 2008).

랭던 위너(Langdon Winner)는 이와 같은 기술철학의 흐름과 역사적 맥락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기술철학의 자리잡기를 시도한 사람이다. 그는 기술의 본질에 대한 물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대안의 필요성을 간과하거나, 대안이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질에 대한 물음을 무시하는 흐름에 동조하지 않는다. 요컨대 위너의 사상은 기술철학이 담보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 즉 기술의 본질에 대한 탐구, 현대기술사회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비판,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 및 대중과의 소통 등을 조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기술에 대한 위너의 철학적 분석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의의를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기술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우선 1절에서는 위너가 기존 기술철학의 두 흐름, 즉 고전적 기술철학(classical philosophy of technology)과 경험으로의 전환(empirical turn)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위너의 기술 이해, 현대기술사회에 대한 진단, 기존의 기술철학에 대한 비판적 분석, 현대 기술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제안 등을 차례로 검토한다. 6절에서는 위너 이론의 한계와 의의를 살펴본다. 위너의 지적 여정은, 기술철학의 이론들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실천성을 무시하지 않으며,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술철학의 발전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기술철학에서 위너의 자리

현대기술철학은 20세기 중반까지를 지배했던 고전적 기술철학과 이후 경험으로의 전환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cf. 손화철 2006a). 고전적 기술철학은 현대기술이 전통적인 기술과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 본질과 특성이 무엇인가의 문제에 집중하였다. 예를 들어 대표주자인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그의 「기술에 대한 논구」 첫머리에서 “기술에 대한 물음은 기술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라고 주장하였는데(하이데거, 1993: 14-17), 그에 따르면 이 물음은 기술의 도구성이나 인간 행동으로서의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라 불리는 어떤 현상의 어떤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것이다. 자크 엘뤼는 현대기술이 인간의 자율성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고 보아 현대기술사회에서는 기술이 자율적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Elul, 1954; 1964). 이들은 현대기술사회와 기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 비관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반하여 경험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학자들은 다양한 기술을 하나의 실체처럼 다루는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술철학이 개별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경험적 탐구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이들은 고전적 기술철학자들의 기술사회 비판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제시되는 것을 무책임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안의 제시를 기술철학의 과제로 삼기도 한다.

위너는 일반적으로 경험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철학자로 분류된다(cf. Achterhuis, 1999; 2001).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그의 기술에 대한 이해나 기술사회에 대한 진단 및 대안이 고전적 기술철학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방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험으로의 전환에 속하는 다른 철학자들과는 달리, 위너는 고전적 기술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 통찰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한다. 동시에, 경험으로의

전환에 속하는 다른 입장들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위너의 기술철학은 고전적 기술철학과 경험으로의 전환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위너의 기술 이해

위너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위너의 주장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기술은 삶의 형식(forms of life)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1) 삶의 형식으로서의 기술

위너는 비트겐슈타인의 용어를 빌려 기술이 '삶의 형식'이라고 주장한다(Winner, 1986: 제 1장). 이 말은 기술의 사용이 단순히 기존의 활동을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의 맥락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우리가 받아들인 장치, 기술, 시스템이 우리 일상적 존재의 맥락에 영켜들면서, 그 도구적 성질들이 우리의 인간됨 자체에 한 부분이 되었다. 매우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는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존재요,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존재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존재요, 일정한 공정과정을 거친 음식을 먹는 존재요, 강력한 화학약품으로 집안을 청소하는 존재다(Winner, 1986: 12).

이러한 입장은 기술이 중립적 도구가 아니며, 도구의 사용이 인간의 통제 하에 있지 않고, 기술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고전적 기술철학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기술 이해는 전통적 기술과 현대기술이 본질적인 차이를 주장하는 고전적 기술철학

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삶의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 기술이나 현대 기술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현대기술의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거나 대처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2) 기술의 정치적 성격

위너가, 1980년에 발표한 “인공물은 정치적인가?”¹⁾는 기술의 정치적 특성을 강조한 가장 대표적인 논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이후 인구에 많이 회자된 로버트 모세스(Robert Moses)의 고가도로에 대한 예를 소개하였다(Winner, 1986: 22-24).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뉴욕주와 맨하탄 지역의 도시 설계를 주도했던 모세스는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설계한 롱아일랜드의 해수욕장과 공원 등으로 통하는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를 낮게 설계하였다. 위너는 모세스의 전기 작가였던 로버트 카로(Robert A. Caro)의 증언을 빌어 이것이 당시 버스를 주로 타고 다녀야 했던 흑인과 저소득층의 통행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 예는 중립적으로 보이는 인공물이 제작자의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위너에 따르면, 모세스의 예는 인공물이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제작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간 경우에만 기술의 정치적 특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공물이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태양열 발전은 분산적이고 민주적인 관리 시스템과 연결된 가능성이 많고, 핵발전소에는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위너는 “기술적 시스템의 환경을 특징짓는 사회적 양식(patterns)을 검토해 보면 어떤 장치나 시스템이 거의 예외 없이 권력과 권위를 특정한

1) 이 논문은 『고래와 원자로』(Winner, 1986)의 제 2장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방식으로 조직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Winner, 1986: 33)고 주장한다.²⁾

기술이 정치적이라는 그의 제안은 한 편으로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동시에,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나 행위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틀이 될 수 있다.

3) 개별 기술(인공물)의 총체로서의 ‘기술’

위너는 ‘기술’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뜻으로 사용한다. 그가 쓴 대부분의 글에서 ‘기술’은 “현대의 모든 실용적 인공물의 총체”(Winner, 1986: 22)라는 의미로 쓴다. 일반적으로 ‘기술’이라 하면 어떤 물건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기술이란 말이 그 이외의 다양한 정의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는 ‘기술’의 특정한 용례를 강조해야 할 경우에는 장치(apparatus), 조직(organization), 테크닉(technique) 같은 말들을 차용하여 그 뜻을 분명히 구분하기도 한다(위너, 2000: 24).

이러한 실용적인 접근은 기술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한 고전적 기술철학과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기술을 인공물의 총체로 보는 것은 기술 일반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항상 개별 기술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엘웨이 “기술이 자율적”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나의 책상이 자율적이다”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술

2) 이같은 입장은 루이스 뎀포드(Lewis Mumford)의 유명한 논문 “권위적 기술과 민주적 기술”(Mumford, 1964)에서 나타난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뎀포드에 따르면 고대로부터 인간역사에는 권위적 기술과 민주적 기술이 공존해 왔다. 이러한 두 흐름의 대표적 예들로는 피라미드의 건축의 중앙집권적인 인력운용 기술과, 농경사회에서 볼 수 있는 탈집중적인 민주적 기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권위주의적 기술의 영향력은 커졌고, 민주적 기술의 자리는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치적이다”라는 위너의 규정은 “책상이 정치적이다”라는 말로도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논의가 개별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사회구성주의에 대한 글에서 그는 기술 발전의 전체적인 흐름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개별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다.

3. 기술사회에 대한 진단: 기술의 표류

현대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위너는 고전적 기술철학자들과 비슷할 정도로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의 내용은 다르다.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위너는 엘릴의 ‘자율적 기술’ 개념을 일정 정도 수긍하면서도, 그것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취급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기술이 자율적이 되었다는 표현 대신 위너가 채택한 말은 ‘기술의 표류’(technological drift)다(위너, 2000: 129-145). 기술 발전의 결과가 무엇인지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고, 개발 당시의 의도와는 무관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기술발전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하는 배에 비견할 수 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가진 진보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 발전의 결과가 다소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오히려 원한다는 것이다. 위너는 기술사회의 진보사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유토피아론자들은 [기술발전의] 결과를 사전에 알기 원했다. 그들은 계몽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발전을 관리하고자 원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한 유토피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지 진보의 죽음에 불과할 것이다 기술 발전은 그 최종적 모습이 미지의 상태로 남아 있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위너, 2000: 143).

다시 말해서 기술의 표류는 현대기술사회가 기술의 통제를 스스로 포기한 상태를 말한다. 기술표류의 구체적인 현상은 기본적으로는 엘뤼이 말한 바 현대기술의 자율성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양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단, 위너는 엘뤼처럼 기술이 인간 통제를 벗어났다는 점에 강조를 두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통제권을 포기하게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현대 기술사회의 모습을 진단한다. 이를 위해 그가 동원하는 개념들은 역적응(reverse adaptation), 주체의 상실, 기술적 몽유병(technological somnambulism) 같은 것들이다(위너, 2000: 317-329; Winner, 1986: 5-10).

역적응은 엘뤼와 요나스 등이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은 현상으로, 기술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개발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목적이 수단에 맞추어 변형되는 것을 의미한다.³⁾ 막대한 투자로 마련한 건설장비가 있기 때문에 수요와 무관하게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황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목적을 생각해 내는 것은 모두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과정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아무런 반성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위너의 문제 제기이다.

이와 같은 반성의 결여는 기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작과 사용이라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맥락에 끼치는 영향과는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일상생활이 기술적 장치들의 매개적 역할에 의해 변화되는 명백하고도 미묘한 방식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현대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개인의 버릇, 지각, 자기에 대한 개념, 공간과 시간에 대한 생각, 사회적 관계, 도덕과 정치에 서의 한계 등이 모두 새롭게 구성되었다(Winner, 1986: 9).

이러한 변화는 그리 눈에 띄지 않고, 그 의미도 분명하지 않다. 결과적으

3) 엘뤼는 이를 '기술의 자기 확장'이라고 표현했고(Ellul, 1954; 1964: 85-94), 요나스는 목적과 수단의 변증법적 순환이라고 했다(요나스, 2005: 21-22).

로 현대인들은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그 변화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셈이 된다. 마치 풍류병 환자가 잠을 자면서 걸듯이 걷고는 있되, 의식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위너가 『자율적 기술』의 뒷부분에서 길게 서술하는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는 자율적 기술이 아닌 기술의 표류를 주장하는 위너의 입장을 잘 설명해 준다. 위너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프랑켄슈타인이 시체의 부분들을 이어 만든 괴물이 스스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프랑켄슈타인 자신이 괴물에 생명을 불어넣은 직후 자신이 한 일에 전율과 공포를 느끼면서 괴물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다. 그 결과 괴물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홀로 남겨지게 되어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 그러다가 자신을 만든 사람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을 찾아와 자신을 버린 이유를 물으며 그를 비난한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 삶이 비록 고뇌 덩어리라 해도 …… 난 내 삶을 지킬 거요 …… 당신은 나를 당신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소 …… 하지만 당신과 맞설 생각은 없소.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니, 책임만 다해준다면 내 주인이자 왕인 당신에게 고분고분 부드럽게 대하겠소 …… 나는 당신의 정의를, 당신의 너그러움과 애정을 받아야 마땅하오. 당신의 피조물이잖소. 나는 당신의 아담이어야 했건만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당신은 아무 죄도 없는 나를 기쁨에서 몰아내었소 …… 날 행복하게 해 주시오. 그러면 다시 선행지리다(셀리, 2002: 151-152).

기술 표류의 원인은 기술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인간에게 있다. 지금까지의 기술발전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 인간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를 묻지 않았다. 무조건적인 기술발전의 열망과 기존의 기술들에 의해 조작된 필요에 의해 기술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술이 그 발전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

하고 있는 것이다. 위너가 제시하는 현대기술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러한 진단에 기초한다.

4. 기술철학에 대한 진단: 반성적 기술철학

위너의 기술철학은 기존의 기술철학 및 과학기술학(STS)의 이론과 개념들에 대한 반성적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기존의 이론과 개념에 대한 연구는 철학연구의 기본적인 작업 중 하나인데, 기술철학의 짧은 역사에서는 굵직굵직한 주장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서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비판에 응대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위너는 기술철학 내에서 이와 같은 학문적 토론의 계기를 많이 제공했다.

1) 고전적 기술철학에 대한 비판

위너가 그의 기술철학을 전개함에 있어서 넘어서야 했던 첫 번째 대상은 역시 고전적 기술철학이다. 그의 첫 번째 주저의 제목이 『자율적 기술』인 것은 위너의 철학과 고전적 기술철학 사이에 형성된 긴장관계를 잘 드러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로 이 저작에서 위너는 엘릴의 ‘자율적 기술’ 개념 대신 ‘기술의 표류’라는 개념을 채택한다. 책의 제목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개념을 위너의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제목은 ‘자율적 기술’ 개념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시사할 뿐이다. 네덜란드의 기술철학자 마테인저 스미츠(Martijntje Smits)는 이를 ‘엘릴과의 애증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Smits, 1999; 2001: 154).

위너는 고전적 기술철학자들이 지적인 기술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위너는 고전적 기술철학자들과 입장을 달리한

다.

또 그는 고전적 기술철학이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성에 우려를 표한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대안 제시를 포기하는 ‘사려 깊은 수동성’과 ‘새로운 윤리’를 제안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위너, 2000: 186, 187). 위너는 경험으로의 전환을 추구한 다른 기술철학자들과 함께 이 두 접근에 모두 반대한다.

요컨대 근대의 기술적 실천에서 나타나는 과잉과 통제 불가능성의 기원에 대한 탐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점을 가진다. 첫째는 다양하고 복잡한 질문과 고도의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영역에서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일원적이며 총체적인 가설들을 제시하려는 열망이다 둘째는 양식과 절제만으로 충분한 곳에 거대한 의식 혁명을 제안하려는 취향이다(위너, 2000: 190).

만약 기술사회에 희망이 없어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기술사회에 대한 철학적 분석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새로운 윤리의 추구는 고상하기는 하지만 너무 모호해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위너는 이를 ‘방향 없는 깊이’라고 비판한다(위너, 2000: 191).

2) 사회구성주의에 대한 비판

그렇다고 해서 위너가 기술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을 무조건 지지한 것도 아니다. 사회구성주의에 대한 그의 유명한 반론(Winner, 1993a)은 기술철학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잘 드러내 준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은 기술이 자율적으로 발전한다는 엘월의 주장에 맞서 기술 발전의 방향이 관련사회집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우연적으로 정해진다는 사실을 보이려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너는 단순히 개별 기술들의 발전과정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기술철학의 본분을 다할 수 없다고 질타하면서, 기술의 발전을 둘러싼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정황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사회가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기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

기술이 인간에 미친 영향에 대한 관심과, 그 영향에 대한 규범적 평가, 즉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전적 기술철학의 특징과 맞닿아 있다. 고전적 기술철학자들이 현대기술의 비인간화를 비판했을 때에는 ‘인간적임’에 대한 모종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사회구성주의론자들은 관련사회집단의 합의에만 초점을 맞출 뿐 독립적인 규범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

3) 적정기술운동과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비판

위너는 대안 기술의 개발이나 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합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그는 적정기술운동의 뿌리가 반전 운동과 신좌파 운동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기존의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적인 개혁운동이 실패하자 그 구조의 근간이 되는 기술의 개혁으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결과적으로 기술과 정치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 1970년 대 적정기술 운동이나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위너는 단순히 적정기술만을 개발하고 사용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한다(Winner, 1986: 79). 기존의 정치, 경제적 체도가 가지는 힘을 완전히 무시하고 적정기술의 개발만을 통해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적정기술운동과 뉴에이지 운동은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케네디 정부 하에서 반짝 성공을 거두었다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다(Winner, 1986: 80). 그

4)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으로는 「사회구성주의와 기술의 민주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손화철, 2003)을 참고하라.

나마 이들이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기간 중에도 이 운동들은 사회 개혁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산업사회의 피곤함을 잠시 잊게 해 주는 여가활동의 일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분석은 그 이후 기술 개발의 과정에 도입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의 권력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별 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를 묻는 것은 그다지 큰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경우에 따라서는 겉으로는 매우 개혁적으로 보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는 보수적 경향을 띠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Winner, 1986: 139).

한 예로 생명윤리 연구를 들 수 있다. 위너는 이 분야에서 수행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묻는다. 생명윤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연구 영역이 되어 온갖 사변적인 논의를 지속하지만 실제 생명공학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특정 기술이 윤리적 함의를 연구하기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으로 그 기술의 개발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최근 크게 일어나고 있는 나노 기술에 대한 윤리적 연구가 단순히 고용창출효과를 얻는데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Winner, 2003).

4) 언어의 정치학

위너는 『고래와 원자로』(Whale and the Reactor)에서 기술철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들인 ‘자연’, ‘위험’, ‘가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다(Winner, 1986: 7, 8, 9장). 그는 기술에 대한 논의에서 일정한 함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두가 허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 채용되지만, 그 개념들이 모든 경우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중립적인 용어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 주요 개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검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논의를

전개시킬 수 있다.

‘자연’ 혹은 ‘자연상태’는 ‘인공물’에 반대되는 말로 인간이 하는 일의 정당성을 판단할 궁극적인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위너는 자연이라는 말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며,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해된 자연 개념이 다시 전혀 다른 환경정책의 근거로 사용된다는 것을 밝힌다. 예를 들어 자연이 ‘경제적 상품의 원료’로 이해될 때에는 환경보호의 정당성이 비용 대비 산출의 계산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자연을 ‘위기에 빠진 생태계’로 이해할 때에는 생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의 지배는 물론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까지 정당화된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너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사회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연은 무엇이나 정당화할 수 있다. 자연의 텍스트는 수많은 해석의 기회들을 포괄한다”(Winner, 1986: 137). 따라서 자연에 대한 특정한 견해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것을 환경에 대한 나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견해 자체가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연관은 객관적인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를 이해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다.

위너는 ‘위험’과 ‘가치’ 개념에 대해서도 경계한다. 기술영향평가를 하면서 ‘위험’ 개념을 강조하다 보면, 해당 기술의 채택 여부가 아니라 그 기술이 가져올 이익과 폐해를 비교하고 폐해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기술을 정당화하는 도덕적 근거들을 만들게 된다. ‘가치’의 경우에는 ‘~의 가치’라고 하지 않고 막연하게 ‘가치’라는 말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대비시키고, 그것을 주관의 영역에 포함시키므로써 논의의 위상과 구체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초래한다. 위너는 ‘기술과 인간가치’와 같은 막연한 제목으로 뚜렷한 결론이 없는 담론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은 삶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식의 구체적인 물음을 제기할 것을 제안한다(Winner, 1986: 163).

5. 현대 기술사회에 대한 대안

1) 적극적인 해결책으로서의 기술 민주화

인간이 기술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여 비인간화가 지속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이데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위기 속에 드러나는 희망을 기다리며 새로운 시대에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엘룰에 따르면 인간이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태가 더 복잡해질 뿐이다. 그는 인간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기술사회에서 인간이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Elul, 1988; 1990: 411).⁵⁾

그러나 위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이데거나 엘룰의 기술철학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잠을 자면서 걷고 있는 사람은 잠을 깨면 된다. 주인의 역할을 게을리하고 있는 자는 그 역할을 다시 취하면 되기 때문이다. 기술이 표류한다는 상황인식은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위너의 해결책은 민주적 기술의 추구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개별 기술들이 특정한 정치적 관계와 더 양립하기 쉽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래서 그는 기술 개발을 입법의 과정에 비교한다(위너, 2000: 441-453).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야 하듯이 기술도 특정한 삶의 방식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비를 받아들이면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을 제정하는데 참여하듯이 기

5) 엘룰은 위너가 편집한 『기술사회에서의 민주주의』(Winner, 1992)에 기고한 짧은 글(Elul, 1992)에서도 현대기술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다. 그가 민주주의의 가능성이나 희망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기술사회의 현재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며, 기술사회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본다. 그 때를 준비하는 개인들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더라도 유토피아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술개발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기술이 개발될 때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올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민주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안은 개별기술에 대해서 뿐 아니라 전체로서의 기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위너의 기술 민주화 이론이 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된 앤드류 핀버그(Andrew Feenberg)의 민주화 이론과는 다르다는 점이다(Feenberg, 1999; cf. 손화철, 2003). 핀버그는 기술의 발전 과정이 이미 관련사회집단(relevant social groups)에 의한 사회적 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보다 의식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을 통해 사회가 기술의 발전 방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핀버그의 이론에 따르면 어떤 기술이든지 사회의 일정한 영향력 하에서 개발될 수 있다면 기술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너는 민주적인 기술과 비민주적인 기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의 민주화는 좀 더 구체적인 규범적 함의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기술 민주화는 기술 발전의 과정에 시민이 무작정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용이한 기술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술 민주화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의사소통은 “어떤 기술이 민주적인가?”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인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의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너에 따르면 핵발전소는 그다지 민주적인 기술이 아니다.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고, 핵폐기물 역시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어서 엄격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이다. 또 핵발전을 통해서도 대량의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을 둔 민주적인 관리체계가 형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요컨대 핵발전소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양립하기가 더 쉬운 기술인 것이다(Winner, 1986: 37-39). 따라서, 핵발전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관련사회집단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위너의 입장에서는 기술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기술의 민주화는 핵발전소가 장래에 초래할 사회

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러한 미래를 원하는지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기술 민주화의 개념은 단순히 시민이 참여한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⁶⁾

핀버그의 기술민주화가 기술발전의 방향성에 대해서 보다 열려있는데 반해 위너의 민주화는 특정 방향, 즉 직접민주주의적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 위너의 기준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규범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기술들을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핀버그와 더불어 경험으로의 전환에 속한 철학자로 분류되고, 함께 기술의 민주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위너의 대안은 고전적 기술철학의 통찰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

2) 제시와도 같은 깨달음

정작 기술 민주화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너는 그다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타운홀 미팅과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와 같은 모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의 관심은 기술사회 개혁을 위한 행동지침의 마련이 아니다. 위너의 대안들이 기술 사회 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그의 입장과도 일관성이 있다. 모든 문제는 자신이 속한 소규모 공동체의 민주적 결정권과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철학자로서 위너가 최우선으로 삼는 과제는 기술의 정치적 특성을 밝히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기술이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술에 대

6) 위너의 제자인 리처드 E. 스콜로브(Scolove, 1995: 157)가 제시한 민주적 기술의 설계 기준을 보면 위너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한 논의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에 대한 비판적 반성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때문이다. 대안의 제시는 기술의 특성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끊임없는 고민과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인식론적 기계 파괴주의’(epistemological Luddism)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위너, 2000: 453-466). 엘월이 “인간에게 남은 자유는 기술사회에서 인간이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유 뿐”(Ellul, 1988; 1990: 411)이라고 말한 자리에서 위너는 특정 기술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그 기술이 나의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파악하라고 권한다. 이는 삶의 형식으로서의 기술을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⁷⁾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너는 기술표류의 상태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 이론과 방법을 통한 객관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는 자신의 고향마을에 갔다가 근처 해안 디아블로 계곡에 세워진 원자로를 구경할 우연한 기회를 얻게 된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소통을 시도한다.

언덕 꼭대기의 평평한 지점에 도착하여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는 순간, 아찔함이 엄습했다. 우리 아래로 보이는 작은 만의 해안에는 아직 공사 중인, 검은 직사각형과 두 개의 하얀 반구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자로가 등지를 틀고 있었다 바로 그 때 또 다른 무엇이 나의 눈을 사로잡았다. 원자로와 디아블로 바위와 같은 방향의 먼 바다에 캘리포니아 회색 고래가 잡지기 수면 위로 떠오르더니, 숨구멍에서 하늘로 한바탕 물을 뿜어내고는 다시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견딜 수 없이 무거운 침묵이 나를 덮쳐왔다 (Winner, 1986: 165-166).

7) 흥미로운 것은, 이 방법이 한편으로는 엘월이 말한 자율성의 상실을 실감하고, 삶의 형식으로서의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한시적으로나마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그 기술의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엘월이 말한 현대 기술 현상에 대해서는 상당할 정도로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비판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디아블로 계곡 원자로의 계획과 건축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미 얼마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2월 어느 햇볕 좋은 날 실제로 해변에 딱 하니 들어서 있는 원자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회색 고래가 수면에 떠올랐을 때, 마치 온 세상이 나에게 “넌 그동안 어디 있었니?” 하고 묻는 것 같았다(Winner, 1986: 175).

위너는 이 순간을 ‘계시와도 같은 깨달음’(epiphany)라고 표현한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기술과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원자로를 지난 세월 동안의 기술 발전을, 고래는 그 과정에서 그와 그가 속한 공동체가 깊은 성찰 없이 포기해 버렸던 질적 요소들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진보의 틈바구니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합리화, 규격화, 현대화의 과정을 통해 상실된 인간성, 공동체, 주체성의 회복이 이론적 담론의 주제가 아닌 자신과 자기 공동체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6. 위너 기술철학의 한계와 의의

1) 위너의 기술철학에 대한 비판

위너의 기술철학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스미츠에 따르면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위너가 기술 발전의 복잡성을 너무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 초기부터 민주적인 기술과 비민주적인 기술을 구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본다. 해석적 유연성의 가능성과 관련사회집단에 따라 비민주적일 것이라 생각했던 기술이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는 것이다(Smits, 1999; 2000: 162-164).

스미츠 자신은 위너가 기술을 삶의 형식이며 정치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면서도, 기술에 의해 변화하는 삶의 양식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는 독립

된 형이상학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직접 민주주의의 원칙의 경우, 기술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될 절대선으로 삼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스미츠는 위너도 기술과 정치의 영역을 구분하고, 후자가 전자를 지배해야 한다는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셈이라고 주장한다(Smits, 1999; 2000: 164, 166-167). 그녀는 기술을 아이들과 같은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데, 기술도 아이처럼 초기에는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지만 커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길을 밟아간다는 것이다.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Smits, 1999; 2000: 167).

기술의 민주화 주장에 대해서도 과연 현대기술의 발전에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민주주의는 늘 일정한 경계를 전제로 하기 마련인데, 특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없는 현대 기술을 제어하는 민주주의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손화철 2006b: 132-137).

나아가 위너가 제안하고 스크로브가 구체화한 민주적이고 소규모의 기술 개발이 과연 어느 선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래리 A. 히크먼(Larry A. Hickman)은 위너가 매우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너가 미국 군대와 같은 거대 조직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Hickman 2001: 170).

2) 위너 기술철학의 의의와 시사점

이러한 비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너의 기술철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기술철학의 향후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위너 기술철학의 내용과 연관하여 그 사상의 의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너는 기술철학의 반성적 접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기술철학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독자적인 기술사회 분석 대신 기술철학의 기존논의들을 출발점으로 '기술의 정치적 특성'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종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고전적 기술철학이 지적한 현대 기술사회의 문제들은 기술을 통해 재배치되고 바뀌어 버린 사회적, 정치적 변화들로 이해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술의 정치적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 경험으로의 전환에서 제기한 구체적 대안의 부재와 개별 기술에 대한 세심한 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기술 전반에 대한 분석과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기술에 대한 논의들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수행하여 기술철학의 이론들 사이에서 토론을 촉발하려 하였다.

기술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에 대한 비판 역시 반성적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기술철학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기술철학의 역할이 기술발전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인도해야 한다는 식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너는 충분한 숙고가 전제되지 않은 표피적인 해결책들을 경계하고 이론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 기술철학 내부에서 대안의 제기와 비판이 이루어지고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분과학문으로서의 기술철학이 스스로 정합성과 역동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 본연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기술철학 이론들은 특정 기술의 개발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식의 구체적인 행동과는 구별되어 자체적인 담론의 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위너의 지적 노력들이 기술철학 내실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기술철학의 이론적 틀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위너는 응용철학으로서 기술철학의 자리를 간과하지 않는다. 사회구성주의에 대한 위너의 비판은 기술철학의 역할이 기술에 대한 서술적 분석만으로는 그쳐서는 안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향성의 제시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그의 입장을 보여준다. 그가 제시한 기술의 민주화가 비록 당장 실현할 수 있을 법한 단계적인 방법론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술사회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사회와 기술발전의 방향을 뚜렷이 제시하여 논의의 시발점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꾀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위너는 기술철학의 논의가 이론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기술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균열을 일으키는 비판적인 사고가 없이는 기술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식론적 기계과괴주의’를 권하는 것이나, 자신의 ‘계시와도 같은 깨달음’을 소개하는 것은 소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위너가 MIT의 Technology Review라는 소식지에 고정적으로 기고한 짧은 글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과연 기술의 발전이 불가피한 것인가?(Winner, 1998) 과연 과학연구에 대한 막대한 지원은 시민들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가?(Winner, 1993b) 웹은 과연 정보의 보고인가?(Winner, 1995) 과연 우리가 진보라 부르는 것이 인간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고 있는가?(Winner, 1992) 위너는 이 글들에서 명료하고도 설득력 있는 언어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비판함으로써, 기술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화들을 반박한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일까?”(Winner, 1986: 178) 『고래와 원자로』를 마무리하는 위너의 탄식은 현재의 기술사회에 대한 그의 안타까움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철학의 몫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완성해 내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위너의 지적 여정은 적어도 기술철학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 위너는 기술철학이 이론과 실천의 영역을 가로질러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가 시도한 학문적 정합성과 역동성, 실천적 대안의 제시, 그리고 대중과의 의미 있는 소통 등은, 기술철학이 철학의 한 분과로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데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 참고 문헌 □

- 랭던 위너, 강정인 번역 (2000), 『자율적 테크놀로지와 정치철학』, 아카넷.
[Winner, L. (1977), *Autonomous Technology: Technics-out-of-Control as a Theme in Political Theory*, The MIT Press.]
-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번역 (1993), 『기술과 전향』, 서광사. [Heidegger, M. (1962), *Die Technik und die Kehre*, Tübingen.]
- 메리 셸리, 오숙은 번역 (2002), 『프랑켄슈타인』, 미래사. [Shelley, M. (1818), *Frankenstein*, Penguin Book.]
- 손화철 (2003), 「사회구성주의와 기술의 민주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哲學』, 제76집, pp. 263-288.
- _____ (2006a), 「기술철학에서의 경험으로의 전환: 그 의의와 한계」, 『哲學』, 제87집, pp. 137-164.
- _____ (2006b), 『현대기술의 빛과 그림자: 엘월 & 토폴러』, 김영사.
- _____ (2008), 「기술이 철학을 만났을 때」,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4판, 한양대학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편, pp. 132-153, 한양대학교 출판부.
- 한스 요나스, 이유택 번역 (2005), 『기술 의학 윤리: 책임 원리의 실천』, 솔.
[Jonas, H. (1987), *Technik, Medizin und Ethik*, Suhrkamp Verlag.]
- Achterhuis, H. ed. (1999/2001), *American Philosophy of Technology: The Empirical Turn*, Robert P. C. trans., Bloomington: Indiana U.P..
- Ellul, J. (1954/1964), *The Technological Society*, trans. by Wilkinson, J. New York: Vintage.
- _____ (1988, 1990), *The Technological Bluff*, Michigan: Eerdmans.
- _____ (1992), "Technology and Democracy", *Democracy in a Technological*

- Society, Philosophy and Technology*, Vol. 9, pp. 35-50.
- Feenberg, A. (1999), *Questioning Technology*, London: Routledge.
- Hickman, L. (2001), *Philosophical Tools for Technological Culture: Putting Pragmatism to Work*, Indiana U.P..
- Mumford, L. (1964), "Authoritarian and Democratic Technics", *Technology and Culture*, Vol. 5, No. 1, pp. 1-8.
- Sclove, E. R. (1995), *Democracy and Techn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Smits, M. (1999/2001), "Langdon Winner: Technology as a Shadow Constitution", in Achterhuis, H. ed., *American Philosophy of Technology: The Empirical Turn*, Robert P. C. trans., pp. 147-169, Bloomington: Indiana U.P..
- Winner, L. (1986), *The Whale and the Reactor: A Search for Limits in an Age of High Technology*, Chicago: Chicago U.P..
- _____ (1992), "Farewell to Progress", *Technology Review*, Vol. 95. Issue 6, p. 73, The MIT Press.
- _____ (1993a), "Social Constructivism: Opening the Black Box and Finding it Empty", *Science as Culture*, Vol. 16, No. 16, pp. 472-452.
- _____ (1993b), "A New Social Contract for Science", *Technology Review*, Vol. 96, No. 4, p. 65, The MIT Press.
- _____ (1995), "Aristotle Needs a Web Page", *Technology Review*, Vol. 98, No. 8, p. 66, The MIT Press.
- _____ (1998), "Prophets of Inevitability", *Technology Review*, Vol. 101, No. 2, p. 62, The MIT Press.
- _____ (2003), "Langdon Winner's Testimony to the Committee on Science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the Social Implications of Nanotechnology", <http://www.rpi.edu/~winner/testimony.htm>
- Winner, L. ed. (1992), *Philosophy and Technology*, Dordrecht: Kluwer.

논문 투고일	2010년 03월 15일
논문 수정일	2010년 04월 29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10년 05월 04일

□ ENGLISH ABSTRACT □

A Search for Balance in Philosophy of Technology: An Introduction to Langdon Winner's Idea on Technology

Wha Chul S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troduce Langdon Winner's views on technology and to evaluate his theory in terms of the future direction of philosophy of technology. First, an attempt to situate Winner's idea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of technology will be made. Second, details of Winner's position concerning technology will be demonstrated. His understanding of technology, diagnosis of modern technological society, evaluation of contemporary philosophical discourse on technology, and his own suggestion for overcoming problems of the technological society will be presented respectively. Third, Winner's philosophy of technology will be evaluated. The reflective examination of philosophical theories and concepts, recognition of the practical task of philosophy of technology as an applied philosophy, and the attempt to communicate and involve the public will be suggested as the merits of Winner's philosophy, as well as the future direction that philosophy of technology should take.

Key terms

Langdon Winner, Philosophy of Technology, Classical Philosophy of Technology, Empirical Turn, the Future of Philosophy of Technology, the Drift of Technology, Democratization of Technology